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20만 서명운동 돌입

노조 인수위 앞 기자회견 ... 비정규직 철폐·불법파견 범죄 종식 투쟁 선포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철폐와 불법파견 범죄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범죄자



엄중 처벌 촉구, 2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범죄 종식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재벌의 명백한 불법은 20년간 아무 제재 없이, 처벌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불법을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의 피해자들은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해도 자본은 산업현장, 노동현장에 이 판결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본은 끝없는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는 불법을 방관하고, 사법부는 판결 지연으로 은폐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대중 서명운동과 현장 서명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쟁의 불을 지필 것이다”라며 “금속노동자들이 2022년 20만 총파업을 반드시 만들어내 불법파견 종식과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서명운동이 처음은 아니다. 20년 가까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 위해서 조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지회장은 “자본이 불법파견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검찰과 사법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숨방망이 처벌하기 때문이다”라며 “검찰이 한국지엠

을 비정규직 노동자 1,719명 불법파견 사용으로 기소했는데, 재판이 2년째 진행 중이다”라고 성토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법부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 대해 수십 번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는데,

완성차 공장, 부품사 공장까지 2차, 3차 하청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 명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자 승소가 가까워지자 범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라며 “현장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년 넘은 불법파견 범죄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조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묶고, 원청과 하청노동자를 엮어서 거대한 공동투쟁, 강력한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노동자 노조할 권리 쟁취 연대투쟁 선언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 공동지원단 발족 ... 삼성, 노사협의회 이용 무노조 경영 시즌2 나서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함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에 발 벗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이하 공동교섭단)이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노조 죽이기’에 나선 삼성전자 자본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공동지원단’이라는 형태로 공동교섭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삼성SDI울산지회, 금속노조 법률원이 공동지원단으로 공동교섭단과 함께한다.

공동지원단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가 임금협상 결과를 일방 발표함으로써 삼성그룹 모든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라면서 “이번 발표는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삼성의 지긋지긋한 무노조 경영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규탄했다.

공동지원단은 “삼성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맺은 임금교섭 결과를 당장 철회하라” 라면서 “노사협의회는 단순 협의기구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라고 꼬집었다. 공동지원단은 삼성 자본이 노사



협의회나 어용노조를 앞세워 ‘무노조 경영 시즌2’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삼성이 운영해온 노사협의회는 사원대표라는 탈을 쓴 사용자의 충신을 위한 자리다” 라며 “삼성 무노조 경영의 본질은 노사협의회에 있다” 라고 고발했다. 이원일 위원장은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움켜쥐고 투쟁에 나서는 공동교섭단과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런 일이 삼성전자에서만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공동지원단으로 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이유를 밝혔다.

박경선 부위원장장은 “삼성그룹사

노동조합들을 무력화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삼성전자 공동교섭단과 연대 전선을 튼튼히 치고 힘차게 투쟁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 시즌2를 맞아 새로운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며, 삼성전자가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껌껌이 선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선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악용, 단체교섭 의무 해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지원단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삼성 자본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라고 전면 투쟁 결의를 밝혔다.